

2016년 제5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2016. 12. 16.(금) 15:00~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3층 교육장】

행정지원팀장	행정지원실장	원 장	결
남혜진	이/미	장기두	재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2017년 제5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 일시 : 2016. 12. 16. 15:00~
- 장소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3층 교육장
- 참석 : 남궁영(이사장), 우길동(이사), 장기수(이사), 송태화(이사), 이종원(이사), 이철이(이사), 박진규(이사), 손진희(이사), 이상백(김민호 이사 대리참석), 강인영(이사), 유규상(감사), 노문섭(감사)
- 미참석 : 김석필(이사), 강현수(이사)

사회 행정지원실장 이재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실장 이재기입니다.

오늘 임시이사회는 새로 취임하신 이사장님께서 처음으로 주재하시는 자리로, 본업으로 바쁘심에도 청소년진흥원에 열정을 가지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들에 대하여 직원들을 대표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회 개최관련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재단법인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2016년 제5차 임시이사회 개최를 위한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정관 제17조에 의해 재적이사 12명 중 10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임시이사회에 앞서 오늘은 이사장님께서 취임 후 처음 개최되는 이사회라 먼저 임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순서는 이사장님의 오른쪽부터 시계반대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6년 12월 1일자로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로 부임하신 남궁 영 이사장님이십니다.
-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팀장으로 재직 중이신 유규상 감사님이십니다.
- 충청남도 교육청 체육인성건강과장으로 재직 중이신 우길동 이사님이십니다.

이사 우길동

반갑습니다.

사회 행정지원실장 이재기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실장으로 재직 중이신 이종원 이사님이십니다.

이사 이종원

반갑습니다.

사회 행정지원실장 이재기

- 선문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손진희 이사님이십니다.
- 이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재임 중이신 강인영 이사님이십니다.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으로 재직 중이신 장기수 이사님이십니다.

이사 장기수

반갑습니다.

사회 행정지원실장 이재기

-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이신 송태화 이사님이십니다.
- 충청남도 노동인권네트워크 대표로 재직 중이신 김민호 이사님을 대리하여 진흥원 인사위원이시면서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으로 재직 중이신 이상백님이 대리 참석하셨습니다.
- 다음은 사회복지법인 청로회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신 이철이 이사님이십니다.
- 다음은 호서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박진규 이사님이십니다.
- 천안아산공인회계사협의회 회장으로 재직 중이신 노문섭 감사님이십니다.
-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재직중이신 김석필 이사님은 유관순상 관련 회의 참석으로, 충청남도 경찰청 여성청소년 과장으로 재직 중이신 강헌수 이사님은 경찰청 전체 주요행사 참석으로 부득이 두 분이 불참하셨습니다.

본업에 바쁘실텐데도 참석해 주신 임원님들과 대리 참석하신 분들께 진흥원 직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청소년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 본 원 이미원 상담복지센터장 입니다.
- 본 원 박영의 활동진흥센터장 입니다.

그럼 청소년진흥원 장기수 이사님께서 잠시 인사말씀을 드린 후 곧바로 이사장님께서 청소년진흥원의 2016년 제5차 임시 이사회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사 장기수

청소년진흥원 장기수 원장입니다. 우선 짧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서 함께해주신 우리 이사님들, 이사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사회 일정의 일정이 여러 가지 연말이라 촉박한데 촉박한 중에서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예산하고 2017년 예산 확보 과정에서 너무 고생 해주신 우리 유규상 팀장님, 김석필 정책관님, 우리 윤상임 주무관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직원 모두가 이사님들이 주신 제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자료가 조금 늦었던 게 저희가 이번주까지 저희 예산이 확정인 좀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조금 늦게 배부해드려서 너무 죄송하던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남궁영

자, 시작할까요? 예. 자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단법인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2016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사장 남궁영

오늘 이사회 진행은 먼저 보고안건으로 제1호, 2016년 제4차 임시이사회 서면결의 내용, 제2호로 청소년성문화센터 조직 운영계획, 제3호 법인 주사무소 이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또 심의 안건은 심의 의결 안건으로

- 제1호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 제2호 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안)
- 제3호 2017년도 본예산(안)

- 제4호 정관 일부개정(안)
- 제5호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개정(안)
- 제6호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 제7호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 제8호 예산회계규정 일부개정(안)
- 제9호 직원근무평정규정 일부개정(안)
- 제10호 원장 연봉 인상 승인 및 소급 지급(안)
- 제11호 기본재산(출연금) 이자 사용계획(안)

제12호 2017년도 직원 기본연봉 인상 지급(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는 다음에, 또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진 후에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사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안건으로 제1호, 2016년 제4차 임시이사회 서면결의 내용, 제2호로 청소년성 문화센터 조직 운영계획, 제3호 법인 주사무소 이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사장 남궁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일괄로 하고 일괄로 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원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장기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요약보고서와 회의서류를 보시면서 제 보고내용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임시이사회는 보고의 건 3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의 건 제1호 2016년 제4차 임시이사회[서면결의] 내용 관련내용입니다.

서면결의의 주요내용은

첫째, 2016년 7월 11일 고정형 흥성청소년성문화센터 1개소를 충청남도로부터 신규 수탁함에 따른 운영비 증가액 460,740천원을 포함한 463,230천원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과,

둘째, 직원 성과연봉 지급시 도 공공기관 평가와 연계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보수

규정 ‘성과연봉 평정등급 및 지급율’ 표 하단에 “기관경영평가 결과에 연동하여 지급비율은 증감될 수 있음” 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사회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건 제2호 청소년성문화센터 조직 운영 계획 관련입니다.

기존(천안)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추가(홍성)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관리·운영을 통하여 도서벽지 대상자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와 자료 공유를 통한 교육수준의 상향평준화 등 사업효율성 제고를 위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2월에 공사를 완료하면은 1월 초에 개소식 이후에 천안·아산 뿐만아니라 충청남도 전반에 대한 청소년성교육은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2017년 이사회에 장기발전 계획을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건 제3호입니다. 법인 주사무소 이전 계획 관련입니다.

현 사무소가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는 지적과 또 의회의 지적과 더불어서 이사님들이 매년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대책을 좀 세우라고 말씀해 주셔서 배부된 서류에 보편은 대략적으로 충청남도과 협의해서 TF팀을 꾸려서 2017년도 까지 정확하게 이전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3가지 보고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장 남궁영

네, 원장님이 지금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나, 또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어느 이사님이시든지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이 이사님.

이사 이철이

네 홍성청소년성문화센터에 대해서 여쭙보고 싶은데요 홍성 청소년성문화센터가 만들어지면 별도의 부서가 되는건지, 그것도 진흥원 내에 어떤 기관이 되는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이사 장기수

별도의 안건에도 좀 상정 돼있는데요, 그전에는 저희가 성문화센터가 예전에 상담복지센터내에 산하 조직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행정지원실 산하에 있었는데요, 천안과 홍성이 두 개 생김으로 인해서 이후에 향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계획을 말씀드렸듯이 2017년 3월 상반기까지 좀 계획서를 제출하겠다는 큰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천안·홍성 별도의 센터를 운영하는데, 센터의 조직과 형식과 내용이 전체 진흥원으로 볼 때에는 직원 5명과 1명의 센터장, 그리고 예산규모가 팀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팀으로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별도의 센터로 조직표에서 분리를 하고 내부 운영체계는 이체계가 안정화 되고 장기 계획이 잡힐 때 까지는 셀·센터장 중에서 한분이 관리감독을 겸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부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센터로 봐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천안·홍성, 그리고 충남에 이동형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고정형 3개와 이동형 하나로, 장기적으로 충남 청소년들의 성교육을 책임지는 기구에 대한 계획이 잡혔습니다. 이 계획에 맞춰서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조직으로 장기적으로는 전환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기 때문이 그 계획을 수립해서 이사회에 보고하겠다는 말씀을 이사회에 드린겁니다.

이사장 남궁영

예 또 다른 이사님들 질문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이사 송태화

그 이전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준다는데 연구 용역비가 세워져 있어요?

이사 장기수

추경에 사실은 저희가 연구 용역비는 세우지 않아도 저희가 사실은 저희와 충남발전연구원, 그리고 여성정책개발원 이렇게 TF팀을 꾸려서 했던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홍성성문화센터 설립과정에서도 자체 TF를 통해서 몇가지, 자체 예산으로 한 사례가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의원님들은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하라고 하시는데 용역비를 세우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거나 혹시라도 장소 관련해서 사회적 쟁점이 되면은

그때는 데이터를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 때 그 전에 판단을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을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화하고도 그렇게 약속을 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사장 남궁영

예. 말씀 주시죠.

이사 박진규

네 관련된 질문인데요, 여기에 진흥원 유치, 시·군 의사 조사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진흥원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시·군에 어떤 조건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검토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이사 장기수

저희가 추진과정에서 TF팀을 꾸리게 되면요, 저희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현재 직원들의 의견 뿐만아니라 시·군에서 일정정도 어떻게 의견 수렴을 해서 시·군의 의견과 지원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 기관 관련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시·군과 다양한 협조를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윤곽이 잡히면 그 윤곽을 토대로 해서 시·설명회 라든지 시·군의 의견을 여쭙보는 제도적 과정을 밟을 예정입니다.

이사장 남궁영

자 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이사 일동

네 없습니다.

이사장 남궁영

네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사장 남궁영

자 다음은 심의·의결 안건으로, 앞서서 쪽 나열을 했기 때문에 다시 나열하지 않고 제1호에서부터 제12호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사장 남궁영

원장께서는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장기수

심의 안건 관련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제1호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입니다.

추가경정을 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서는 2016년 7월에 홍성청소년성문화센터를 수탁하여 구체적인 사업진행에 따른 예산 반영과 홍성청소년성문화센터 개소에 따른 홍성군의 지원금 삼천만원에 대한 예산 반영에 기한다고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을 통한 수입 및 지출 예산은 각 3,862백만원으로 이전 예산에 비하여 35백만원 증액되었다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와 이사회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제2호 2017년도 주요사업 세부계획(안) 관련입니다.

먼저 2016년 주요 우수 사업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5월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고, 12월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최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이나 사회적 큰 사고를 통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지원에 관한 조례를 9월 30일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청소년참여 사업이 2년('15~ '16년) 연속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청소년어울림마당을 도 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청소년 정책개발 등 도 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직접사업을 축소 또는 지양해 나가겠습니다. 시·군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들에 대한 다양한 사업 지원, 협력 방안 모색 및 일상적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청소년 사회 참여 확대 및 청소년 리더십 양성교육 확대, 학교 밖 청소년의 성공적 사회진출을 위한 직업체험센터 설치 등 청소년에 대한 직접지원 정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양질의 서비스 지원을 위해 고객인 청소년·학부모·지도자들의 요구에 부응한 지원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보완하여 청소년관련 전문 道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 및 기능 구현을 위한 지속적이고 연속성 있는 사업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나눠드린 사업계획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제3호 2017년도 본예산(안) 관련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이 이번 주에 확정되는 바람에, 자료를 좀 늦게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총재정규모는 4,149,093천원으로 전년도 3,131,755천원과 대비 하여 1,017,338천원, 32,5%증가하였습니다. 이하부터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 국도비보조금 28억8천9백만원, 시군비 보금 480만원, 도비출연금 7억9천만원
- 기금 수입 4천만원, 타기관지원사업 3억2백만원, 반납금 7백만원

세출예산은

- 인건비 14억8천4백원
- 운영비 2억4천2백만원
- 사업비 23억2천3백만원
- 예비비 및 기타 250만원
- 반납금 7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 증액분은 9억2천7백만원으로 출연금 예산 1억3천만원, 사업비예산 7억9천7백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출연금 증가분은 성과급 및 홍성군청소년성문화센터 신규수탁에 따른 인건비지원 등의 증가로 7천6백만원, 부족운영비 증당으로 3천3백만원, 합동정책토론회 지원 사업비로 1천 5백만원, 자산취득비용으로 5백만원, 기타비용으로 2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증가분 주요 증감 내용을 보면, 학교밖진로직업체험시설 관련 사업비 2억원입니다. 이것은 교육청 2억원, 시·군 2억원 해서 총 6억 사업입니다. 청소년사회심리적외상지원 사업비 7천2백만원, 인터넷·스마트폰 치유겨울캠프 4천만원, 그동안 여름에만 진행되고 있었는데 겨울방학을 1회 자체 도비를 확보해서 신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수학여행 관련 사업비 3천 6백만원, 청소년리더양성프로젝트 관련 사업비 9천 4백만원, 청소년참여예산제 정책사업 추진사업비 5천만원, 충남인물리더십 함양 국화캠프 사업비 5천만원, 홍성청소년성문화센터 신규수탁 사업에 따른 1억 5천만원, 홍성청소년성문화센터 임차료 지원이 2천 4백만원으로 신규 편성된 것입니다.

부의안건 제4호 정관 일부개정(안) 관련입니다.

법인 명칭에 걸맞게 용어를 변경한 것으로, 정관 ‘제5장 사무처’ 를 ‘제5장 조직 및 인력관리’ 로, 제31조 조문명을 ‘사무처’ 에서 ‘조직 및 인력 운영’ 으로, 내용 중 사무처를 진흥원 또는 조직으로, 사무요원을 조직 및 정원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사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제5호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개정(안) 관련입니다.

직제 및 정원규정의 [별표1]에 따라서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기구표’ 상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표시하였으며, [별표2] ‘실별 분장사무’ 중 행정지원실 사무분장 제8호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을 삭제하고,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제6호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관련입니다.

복무규정 제6조에 상담복지센터와 활동진흥센터 직원 각 1명씩 토요일 당직근무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활동진흥센터의 경우 토, 일요일에 외부사업이 집중되어 있어 한정된 인력으로 토요일 당직근무가 어려운 형편인 바, 이사장의 재량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6조의 “직원 각 1명씩을 당직자로 선정하여 근무토록 하되” 라는 문구를 “직원 각 1명씩을 당직자로 선정하여 근무토록 할 수 있되” 라고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제7호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관련입니다.

첫째, 사업계약직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통한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차별해소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사업계약직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로 제11조 제5항 “사업계약직에 대하여는 원장이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급의 지급여부, 지급대상자, 평정등급, 지급율(또는 지급액) 등 지급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를 신설하였습니다. 예산형평상 당장 지급할 수 있는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저희 기관별로 사업직 관련해서 성과급을 주는 데가 있고 주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어떤 도와 협의해서 이괄적으로 어떤 방침을 하되, 근거는 미리 좀 마련을 해두는게 맞겠다 해서 개정하는 안을 올린 안입니다.

둘째, 충청남도 지침에 따른 원장 연봉 한계액 탄력 적용을 위해 보수규정 [별표 1] “연봉 한계액 기준표” 상 원장 연봉 한계액 기준을 충청남도의 공공기관장 연봉기준 지침에 따르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공공기관장의 연봉은 올해부터 혁신관리팀에서 정해서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정한 금액을 앞으로 따르겠다 하는 것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부의안건 제8호 예산회계규정 일부개정(안) 관련입니다.

2017. 1. 1.부터 시행되는 충청남도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 구축에 따른 예산회계규정의 문구 및 일부 서식 개정관 관련하여, 예산회계규정 제5조의2를 신설하여 회계문서의 날인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수입결의서, 반납결의서 및 지출결의서 양식을 변경하였습니다.

부의안건 제9호 직원평정규정 일부개정(안) 관련입니다.

사업계약직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필요한 근무실적 평가를 위하여 제3조 후단에 “다만, 사업계약직에 대하여는 원장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방법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라고 부기하였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성과급 뿐만아니라 사업계약직의 무기계약 전환 과정에서의 평가도 어느정도 필요하다 하시면 내부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부의안건 제10호 직원평정규정 일부개정(안) 관련입니다.

원장 연봉 인상승인 및 소급지급(안) 관련입니다.

도 혁신관리담당관실의 지침에 따라 원장의 연봉은 기존

7천만원에서 2016년 총인건비 인상률 3%와 2016년 기관장 성과등급과 관련한 2% 합계 5%를 인상하여 7천3백5십만원으로 하며, 금년 7월 1일부터 소급하여 2016년 12월 31일 기준 미지급금 1,764,380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부의안건 제11호 기본재산(출연금) 이자사용 계획(안)과 관련됩니다.

이자를 기본재산에 편입할 경우 정관 제34조(정관의 개정)에 따라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과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후 기본재산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 등 변경등기절차가 복잡하고,

기본재산에 대한 금융기관 이자가 연 1.6%에 불과하여 물가인상률을 감안할 때 제로 금리 수준으로 기본재산 적립의 의의가 반감되는 바,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정관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상액은 세 공제 후 4,742,777원으로, 이것을 사업에 반영해서 집행하겠다는 안입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작년 이사회에서도 의견을 주셔서 이사회 의견대로 안건을 올렸습니다.

부의안건 제12호 2017년도 직원 기본연봉 인상(안)과 관련입니다.

보수규정 제5조(연봉의 조정) 제3항에 따른 2017년 공무원 임금인상률 3.5%와 제11조(성과연봉의 지급) 제1항에 따른 성과연봉의 10%, (연봉으로 따지면 약 0.8%정도 되겠습니다.) 를 기본연봉 인상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총 약 4.5%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12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질문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남궁영

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주신거에 대해서, 각 안전에 대해서, 여러 이사님들, 자유롭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명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안전이 많기 때문에, 안전명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뭐 무슨 말씀이든지 말씀을 해주시죠.

이사 송태화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이사장 남궁영

네. 그러시죠. 송태화이사님

이사 송태화

정관 일부개정(안),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사무요원을 둔다, 사무처를 둔다, 이 직제를 다 고치면 좋은데 4항에 보편은 예를 들어서 24페이지 사무처를 조직 및 인력운영으로 바꾼다고 되어있죠. 그래서 사무요원이라는 사람을 이런 용어를 다 바꿨거든요. 그렇다 하면은 4항 진흥원의 사무요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5항 사무요원의 인사보수, 이 사무요원이 같이 삭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용어를 사무요원이라는 것을 없앴으면 이것도 직원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바꾸면 어떤가, 이걸 안바꾸고 위에 2항, 3항에서는 사무요원을 바꿨는데, 없애버렸거든요? 조직과 인력으로, 그렇다 한다면 4,항, 5항도 해당된다 하는 것을 같이 좀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사장 남궁영

자, 그러면 일부가 수정되는 건가요?

이사 송태화

아니 지금 뭐 꼭 아니지만 사무요원이 필요한건지, 그래서 직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지, 사무요원이라는 용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뒤에 같이,

이사장 남궁영

예,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우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사 송태화

또 하나 그 28페이지 직제에서 실별 분장사무라고 하는데 사실은 실은 행정지원실 하나고 나머지는 센터거든요? 이 용어가 좀 예를 들어서 실·센터 업무분장이라고 해야하는데 일반적인 용어로 그냥 실별, 그러니까 실은 하나고, 나머지는.

이사 장기수

실·센터별 업무분장으로.

이사 송태화

센터는 3개로 바뀌는데, 거기에 따라서 용어정리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거 말씀을 좀 일단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33페이지 같은 경우에, 대체휴무를 하는데, 일례를 들면 이사장은 직원의 휴무일 지정시 업무요건을 고려하여 허가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사장님이 직원을 핸들하기는 좀 어렵고 직원의 근무, 그담에 모든 문제는 원장이 해야된다고 보면은 이 어떤 규정상에서는 개괄적으로 대체휴무를 할 수 있다고 하고서 그리고는 이사장님을 빼주고 원장님 전결사항으로 처리해야 될 것을 여기에서 문구를 이사장을 넣어놓는 것은 부담스럽고, 이사장이 직원을 일일이 컨트롤 할 수 없고 또 내부적으로 아까 물어봤더니 직원의, 원장의 전결사항으로 들어가긴 한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번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결재의 흐름을 같이 좀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사장님 여기에 어떤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원장님 계시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의 근무감독, 이런 것들을 하여야 한다. 이런 개념과 또 하나 설명 드릴 것은 직원연봉, 직원연봉 인상을 이번에도 심의에 올렸거든요? 해마다 이걸 이사회에 올려야 하는건지, 사실은 이사장님 계시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보수규정은 있지만, 이 보수규정은 자체적으로 이사장님으로 내부적으로 결재를 하지, 매년 이거를 이사회에다가 직원 연봉 올리는 것까지

이렇게 올리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성과에 따라서 계약도하고 성과급도 결정이 되는데 그렇다 보면은 지금 이번에는 이렇게 한다하지만 다음번에 하실 때에는 이 보수규정상에서의 지급은 이사장님하고 결정한다고 해야 되는데 이걸 이사회 때마다 몇% 올릴까에 관한 사항을 일일이 올리고 승인하는 이 자체는 비효율적이다 하는 의견. 전체적으로. 이 내용에 봐서 조금 좀 내년에는 행정지원실장께서 지원을 하셔가지고 이사장 부분이 너무 많이 앞에, 전면에 나서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과감하게 이사회에서 정책적인 것만 결정을 하고 넘겨줄 것은 과감하게 원장님에게 넘겨주는 방법을 택했으면 하는 의견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 장기수

조금 이사님 말씀에 조금 답변을 드리면 좋은 제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도 원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 원 설립 과정에서 어려운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에 일정정도 관리중심으로 이 운영규정을 좀 운영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불합리하고 아니면 자율성이 좀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있어서, 이렇게 의견 주시면 내년에 이사회 때는 좀 그런 부분들, 원장의 권한은 원장의 권한대로, 이사장의 권한은 권한대로, 이사회 권한들은 좀 세분화해서 그전에 처음 만든 시기에 여기가 굉장히 예를 들자면 관선이사 파견되면서 그때 그런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일일이 보고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규정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렇게 말씀 주신김에 내년에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이사회 안건으로 한번 좀 올리겠습니다.

이사장 남궁영

예, 그러시죠. 대체로 원장은, 원장연봉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고, 직원들은 원장이 출연기관이 도와고 협의 하에 원장님이 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이사 이종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복무규정이나 예산회계 규정같은 것도 보니까 아주 중대한 변동사항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당연히 원장님 재량으로 결재하시고 끝날 수 있는 일인데 뭐 이사회 안건이 12개가 지금 올라와가지고 다 검토하기도 그런데 적절하게 한번 규정개정을 하셔가지고 원장님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구지 이사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사소한 거지만은 복무.. 아 직제규정 관련해서 29페이지 보면은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기능을 그렇게 적으신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안돼가지고, 이게 한 조직의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이 돼야 혼동이 없을 것 같아서, 2번 같은거 보면은 청소년성문화센터 종사자 및 관계자 역량강화교육 그랬는데 청소년성문화센터 소속된 직원에 대한 교육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이사 장기수

관계자라고 하면 자원봉사자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을 좀 저희가.

이사 이종원

청소년성문화센터 내부직원에대한 교육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거는?

이사 장기수

네. 내부 직원도 있고요, 저희도 자원봉사자라든지, 이 관련된 기관 종사자들 교육을 해서 저희하고 협업을 하는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걸 포괄적으로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사 이종원

네. 근데 뭐 그걸 구지 청소년성문화센터 이런 표현보다는 어떤 청소년 관련 종사자 및 관계자 교육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표현하면은 자기자체센터 교육, 직원들 교육하는게 이게 무슨 기능이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행정지원실장 이제기

죄송하지만 이게 여가부 지침에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사 이종원

아 그렇습니까? 3번도, 3번도 같은거고?

행정지원실장 이제기

예.

이사 이종원

4번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교육 시스템 운영관리 그랬는데 이게 무슨 사이버교육 시스템인지, 성문화 관련인지 뭔가 명확하게.

이사 장기수

성문화관련해서. 이게 이제 이걸 저희가, 1번부터 6번까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여가부 지침에 이렇게 딱 나와있는.

이사 이종원

아 그렇습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네요. 예.

이사장 남궁영

아니 뭐 물론 지침에 나와있다 그래서 그 토씨 글자까지 꼭 그렇게 해야 되는건 아니죠. 우리 이종원 이사님이 만약에.

이사 장기수

제안을 주시면은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배경은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한거고요.

이사 이종원

그리고 말나온김에 제가 덧붙이면은 이번에 아주 사업계획서 보니까 여러 작년에, 아, 올해 수상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세종시로 이사를 와가지고 충남쪽 청소년계

돌아가는 상황을 제가 듣고 있는데,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다양한 상을 수상하시고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많이 수고하신 거, 다시 한번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 장기수

감사합니다.

이사 우길동

제가 좀 한가지 궁금한게 좀 있어서요, 부의안건 2번에, 전체 주신 책에 51쪽 하고요 54쪽, 청소년리더양성프로젝트 사업하고요, 청소년참여예산제 정책사업 추진이 신규 사업인가요?

이사 장기수

리더양성은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좀 했고요, 그리고 2017년 이제 2년 차입니다. 2년차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리더양성 사업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좀 했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사 우길동

제가 여쭙보는 이유는 도교육청에도 이 사업 꼭지를 좀 넣어봤어요. 설득력이 모자라서 청소년리더양성 프로젝트사업은 삭감이 됐고, 청소년참여예산제 정책사업은 반토막이 났어요. 처음사업이라가지고,

이사 장기수

저희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사 우길동

에 좀 해볼려고 그랬는데. 저희는 이제 업무 담당자들끼리 연락이 있었는지는 모르

겠는데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은 위탁을 하려고 했거든요. 여기 본원에다가요. 그런데 이 사업성격이 어떤지를. 두 가지 다요.

이사 장기수

예 청소년리더십 관련해서요 요즘에 이제 아이들 교육 자체가 기존에 정규교육에서 다양한 청소년들의 진로체험 꿈을 찾는 자기리더십 관련해서 이제 프로그램들을 시중에서 사실 일정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하시겠지만은 서울에 특목고나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이게 정규과정으로 들어가기도 했고 대구교육청에서도 이 사업들을 특화해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사님이 시책 사업 중에, 핵심사업 중에 이게 하난데요, 충남에서 청소년리더십의, 어떤 공동형 리더십을 개발을 해보라는 지시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청소년리더십센터와 업무협업을 좀 해서 저희 특성은 뭐냐면 저희가 2박3일동안 리더십 관련해서 참여형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형 수업을 하고 여기서 끝내지 않고 챌린지프로그램이라 해서 그 아이들한테 마지막날 자기 진로나 꿈에 대한 것을 멘토링을 붙여서 체크 하고, 점검하고 그것을 사이버상에서 하기도 하고 연말에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는, 그것을 교육, 챌린지 프로그램, 그리고 마무리 해주는 교육들을 시스템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예산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청소년참여예산제 관련 해서 올해 시범사업을 어떻게 했냐면요, 시·군별로 우리 아이들 대상으로 군예산, 도예산에 대해서 시·군 공무원과 도공무원이 설명을 해주고, 우리 아이들한테 의견수렴을 해서 전체를 의견을 모아서 청소년 예산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 의견을 직접 도 참여예산제 한 쪽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시·군에 보면은 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이 별도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 운영비 관련해서 처음으로 편성을 해봤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전체 시·군 교육, 전체 하나로 모아서 전체의견을 수렴하는 그래서 올해 몇 가지 관련해서 도에 제안을 좀 드렸었고요, 노동인권센터라든지 지금 말씀드리는 진로직접체험시설 이런것들이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사 우길동

예. 참여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이사 장기수

예. 시·군 중고등학교 학생이라고 보시면.

이사 우길동

예. 저희가 지금 도의원들 답변, 설득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좀 있었건 것이, 통과는 못시켰습니다만 학교에서 하는 학생이나, 밖에 청소년이나를 두고 의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바르게 한 것 같네요. 청소년이라고 표현은 되지만은 학생이기도 하고 그런.

이사 장기수

예. 그리고 이게 법적기구입니다. 저희 법에 의해서 시·군은 참여위원회를 두게 되어있고요, 참여위원회는 시장군수가 임명하게 되어있고 도는 도참여위원회를 두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임명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몇몇 시·군은 시장님 이하 군수님이 연두에 순방할 때 청소년참여위원장을 하나의 배석으로 해서 청소년정책 관련해서도 그 자리에서 의견을 발표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법적기구화 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임명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사 우길동

예. 고맙습니다. 확실하게 사업성격 알았고요, 아마 위탁교육을 도에서 아마 본원에서 하게 될 것 같아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사업성격은 확실히 이제 알았으니까 좀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남궁영

자 다른 또 뭐 질문사항.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화이사님 뭐 또 더 말씀하셔도 됩니다.(웃음)

송태화 이사

저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예, 말씀 문졌습니다. 이사장님 오시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많이 늘렸고, 그다음에 전에 있던 것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도비지원을 많이

해줌으로써 이사장님 역할도 컸고, 특히 원장님 이하 센터장님들이 전부 다 역할을 많이 해줘서 총괄 이사로서 고무적이라 생각하고, 청소년진흥원이 제대로 이제 발을, 발돋움을 하면서 발전·성장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이사장님께서 가져주셨으면 고맙겠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이전계획을 할 때 말씀드릴까하다가 서면보고를 해서 그러는데 사무실을 이전하는 거와 달리 제가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이사장님이 새로 오실 때마다 이제는 이 청소년진흥원이 도다운 기능을 해야되는데 지금 대부분 사업기능을 같이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해서 어 지금 용역비를 확보를 못했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서는 용역이 어디에 있는가, 풀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전도 중요하지만 진흥원의 고유정책적인 기능을 우리 저기 충남발전이라든지 청소년진흥에 대한 홍보를 해야되는데 이 사업비 대부분이 실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진흥원의 고유역할을 보고 한다, 지사님께서도 항상 도다운 행정을 하라고 그러니까 같이 이사하면서 그런것까지 같이 맞물려서 할 수 있도록, 아까 용역비를 세웠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물어본 이유는 같이 좀 용역을 기획실에 판공비같은 것도 있으니까 한 번 청소년진흥원에 전체 도다운 정책기능을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는 시군으로 자꾸 이양을 해줘가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한 번 좀 전 이사장님께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잘 안되더라구요. 돈이 문제가 돼 가지고.

이사장 남궁영

그거는 뭐 우리 청소년진흥원의 예산으로가 아니어도 도의 예산으로도 하면 안되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사 장기수

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 남궁영

예, 예

이사 송태화

확보를, 우리 원장님께서도 제가 보니까 무려 사업비를 엄청나게 막 9~10억씩 늘렸지만 거기에 더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좀 역겨웠던 것 같아요. 힘이.

이사장 남궁영

예

이사 송태화

그래서 전체적으로 풀 영역에서 아까 증발연이라던지 지사님께서 진흥원이 어차피 움직여야된다면, 도 다운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면. 건의를 좀 드립니다.

이사장 남궁영

예, 예. 그거는 우리 저 도에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봐요.

감사 유규상

예,

이사장 남궁영

기획관, 정책기획관실에 저기가 있지. 풀 용역비가 있지

감사 유규상

예

이사장 남궁영

그거해서 뭐 하다못해 몇 천만원 정도 확보해서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죠. 자, 또 다른 이사님들 의견을 좀 많이 주십시오.

이사 이철이

2017년도에 신규사업이 23개를 저 채택이 됐는데요, 그러면 이 23개, 2017년도 신규사업을 하는데 이 엄청 많은 양의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따른 종업원들은 어떻게, 인력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신규사업이 23개면 기존의 인력들이 이 23개의 신규사업을 하는건지, 안그러면 별도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원을 채용을 해야되는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이사장 남궁영

예, 원장님

이사 장기수

그 이제 큰 사업 쪽지로 보면 작년에 우리 송태화이사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시범사업을 1~2년 하고, 그것이 안정화되면 시군으로 프로그램을 내리고 있고, 시스템을 구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접사업과 직접인력관리들을 뭐 동반자라든지, 몸앤맘 등 대부분을 이관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걸 속도를 더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사업 관련해서는 예를 들자면 학교밖진로체험센터는 총 6억 사업입니다. 교육청 2억, 그리고 저희 2억, 그리고 시군, 시군은 어느 시군이 될지 모르겠지만 2억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정정도 인건비가 좀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관련해서도 저희가 계약직으로 한명을 채용해서, 그 한명이 전체 리더십이 1억에다가 무궁화캠프가 리더십의 챌린지 프로그램중의 하나거든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중간정도, 중간점검과 더불어서 동기부여를 해 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관련해서는,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은 저희가 이제 신규사업중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화되는 과정까지의 인력을 확보하는 것까지는 어렵고 그것은 현재 우리 기존 직원들이, 어 저희가 기존에는 여가부의 기본사업중심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충남의 특색있는 사업이 뭐냐는 이런 제안을 많이 해주셔서 지금 개발되는 부분들은 충남만의 고유사업들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직원들한테 그러거든요. 2~3년 시범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는데는 채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우리 직원들이 좀 감수를 해줘야 이것이 그 성과를 가지고 우리가 도를 설득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는

사업계약직이 포함돼 있습니다. 학교밖이라든지, PTSD라든지, 리더십은 그 중에 직원의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사 이철이

또 한가지 질문은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이 충청남도 위기청소년 전체를 보듬고 가는 기관인지, 안그러면 진흥원이 학교밖하고 상담복지만 하는건지 이걸 왜 묻냐면 이 자료를 한 번 제가 봤어요. 봤는데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충청남도진흥원이 충청남도 위기청소년들을 대변하는 기관이고, 그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했는데 상담복지하고 학교밖이 85%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위기청소년 기관 아이들은 진흥원에서 관리가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그게 궁금하다 그거예요.

이사 장기수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이제 충남청소년진흥원 내에 상담복지센터, 활동진흥센터, 성문화센터 뭐 이렇게 있고요, 위기청소년 관련해서는 도에 쉼터, 일시쉼터라든지 보호소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양한, 또 다른 영역들의, 사실은 기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철이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작년서부터 저희가 기존, 기본 사업에 있는 아이들 말고, 그 외에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또 다른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작년, 올해 처음 두해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네트워크를 좀 구성해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 올해 그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지사님을 모시고 토론회를 한 번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대부분이 국도비, 사업의 95%이상이 국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충청남도의 자체사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위기청소년 전반에 대해서 진흥원의 역할을 강화해야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네트워크와 지원체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일이 발생했을 때 서로 최소한 한 아이라도 이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그 이후에 종사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케어하고 역량강화를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사업을 못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저희 과제로 안고 좀 연구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2년차예요, 이사님. 그래서 3년차에는 한 두 가지 사업이라도, 올해 처음으로 저희 기관 말고 위기청소년 기관 직원 대상으로

저희가 힐링, 힐링 1박2일 캠프도 좀 진행을 했고, 몇 가지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사업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예산과 저희 계획을 좀 올해, 내년에 수립을 해서 도와고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 내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직원역량교육이라든지, 힐링캠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해봤는데 그것을 좀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 이철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직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어려운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는 거예요.

이사 장기수

예, 알겠습니다.

이사 이종원

내년도 사업중예요, 이게 사회심리적외상지원사업이 있는데 충남에서 전국 최초로 사회심리적외상지원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이사 장기수

저는 그렇게

이사 이종원

올해요?

이사 장기수

예,

이사 이종원

상당히 이거는, 제가 볼때는 그러면 다른, 물론 뭐 이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세월호사건처럼, 큰 사건이 터지면 국민적관심이 지대한테 더군다나 충남에서 이런 법적인 조례를 갖췄다면 이게 이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선도하는 의미로써.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게 준비도 많이 해야되고, 연구도 많이 해야되고, 시스템에 대해서도 그 해야 될건데, 내년엔 당장 이게 시행하는게 가능한지?

이사 장기수

저희가 말씀드리면 한 2년차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 그리고 교육, 현지에 있는 상담직원들 대상으로 이거와 관련된 전문가를 모시고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은 아시겠지만 세월호를 떠나서 해병대캠프라던지, 특히 지금 AI 이런 거 할 때 그, 저희가 충남은 농업도 한 축이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좀 있냐면요, 첫 번째 청소년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대한

이사 이종원

충남이?

이사 장기수

충남이. 죄송하지만 거의 1등 수준입니다. 안좋은 1등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학교관련해서 이 교육을 한터든지, 또 하나는 AI이라든지 이럴 때 집단매몰을 할 때 그 동네에서 아이들이 그것을 보거든요. 그 아이들도 치유를 받아야됩니다. 그때는 호기심으로 보지만 그 이후에 이 아이들이 평생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사회가 안정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거든요. 이게 조례는 올해 통과됐지만 2년전부터 조례를 하겠다고 해서 차분하게 준비를 해 오고 있고, 전문가들과 더불어서 상담교육까지 다 1차적으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사 이종원

제가 드리고 싶은, 선진국이 이게, 미국이나 이런데가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내 사례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랜 기간 그걸 운영해 온 외국의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선진사례를 볼 겸 해서 해외쪽도 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사 장기수

예

이사 이종원

우리는 여기에 대한 그런 기본, 그런게 없는데, 기존에 갖춰진 시스템이 운영되는 사례들을 보고 와서 우리 쪽에 도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적인, 그걸 단축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잘 만 운영하시면 우리 충남 청소년진흥원의 간판사업으로써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까?

이사 장기수

실제로 전국에 이 관련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몇 차례 토론회, 교육을 받았었는데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한국사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문제의식을 하고 있는데, 충남에서 좀 첫 단추를 잘 꿰고 있, 잘 꿰라고 지지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심리적외상 관련해서 지원체계를 충남에서 구축하는 것, 그것과 관련된 기초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원을 양성하는 것, 그리고 지원체계와 더불어서 이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를 확장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 사업 관련해서 교육청에 협업사업을 넣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아이가, 그런 교통사고라든지 안좋은 일이 있을 때 그 학급이나 학교는 저희가 가서 집단적으로 이 관련된 상담을 해 줘야 되거든요. 외국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 그 시스템을 교육청과 해서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쉬쉬할 것이 아니라 이 전문상담원을 불러서 그 학급과 학교 아이들 전체가 이 PTSD관련된 상담과 교육을 받는 그런 시스

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교육청과 협업사업을 해서 교육청에서 일부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9천입니다. 저희가 7천이고 교육청이 2천. 돈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하고 협업을 해야 이 시스템이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상으로 썬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9천만원 정도 사업입니다.

이사 박진규

저는 어떤 개별사업을 얘기하는 것 보다도 오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공통점과 제가 평소에 진흥원에 왔다갔다하면서 느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진흥원이 좀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하다. 이게 그 해마다 임시이사회에서 하나를 처리하는 것 보다도 큰 로드맵에 의해서 진흥원이 운영됐으면 좋겠다, 저 생각은 그랬고 오늘도 그런 맥의 말씀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충청남도만의 특성화된 사업, 이것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에 이 사님들도 공감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비슷한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직접사업보다는 정책개발을 하고, 어떻게 충청도에 각 시도에 센터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할 있는 총 모빌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정책개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들이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평소에 그런, 그럴려면 조직이 있어야 되고, 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마침 이사장님도 새로 오셔가지고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그러는데, 아마 이사장님도 예산도 조금 지원해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조직도 행정지원실 이거 보다는 좀 행정기획실 이렇게 명칭이랄 바뀌어서, 또 직원도 그냥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획할 수 있는 연구원도 확보를 하셔서, 그러니까 여기는 단순히 행정지원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이사장님의 관심과, 그리고 원장님의 실제 필드에서의 요구, 이것을 잘 담아서 연구에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연구직같은 것도 확보해서, 1~2명이라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지금 나온 얘기들을 담을 수 있는 것이지 또 그냥 지나가면 또 다음에 비슷한 것이 반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뭐 오늘 안건이 올라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기 이사회에서는 지금 나온 얘기들을 담을 수 있는 조직을 명칭이라도 바꾸고, 또 인원이라도 제안을, 오늘 보니까 원장님 산하에 조직과 직원을 둔다고 했잖습니까. 다음 이사회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혹시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사장 남궁영

예, 우리 그 박진규이사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네요. 원장님이 그런 역할을 좀, 이게 이사님이 이사님으로서 요구하신 거니까 그것을 꼭 기록해서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청소년진흥원과 연계되는, 청소년보호활동을 하는 어떤 조직이 있나요? 시군에?

이사 장기수

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시군에, 15개 시군에 상담복지센터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들을 15개 시군에 내릴 사업들은 내리고요, 예를 들자면 학교밖 수학여행같은 경우는 왜 이걸 도에서 하느냐 말씀드리면 학교밖수학여행은 우리가 80명을 데리고 가는데 천안, 아산은 자체적으로 수학여행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학교를 그만 둔 아이들의 제일 첫 번째 꿈이 수학여행을 한번 가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홍성이나 이런 데는 5~6명 밖에 안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묶어주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들은 도에서 직접 하고, 시군에서 가능한 사업들은 가능하게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진규교수님이 말씀, 이사님이 말씀 해주셨던 사업이 저희 숙원사업입니다. 사실은 정책연구기능을 좀 강화를 해야된다.

그래서 매년 사실은 저희가 부끄럽지만 행정지원실에 그 전에 행정지원실 실장, 팀장 2인 체계였습니다. 올해 처, 작년에 처음으로 팀원 하나를 예산을 확보해서 반영을 받았고, 그 내에 최대한으로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 내에서 TF를 꾸리던지, 아니면 그것을 매년 하고 있는데 예산 상 그동안은 걸지도 못했기 때문에 쉽지않은 상황이라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까지 예산이 안됐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매년, 매년 정책사업비를 2천 정도를 확보를 해가지고요, 다행히 충남에는 청소년관련된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대학도 있고, 또 하나는 세종시에 정책연구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장님이 저희 지역의 나사렛대학교 교수님 출신이기도 하셔서 지금 사안 사안별로 팀을 꾸려가지고, 그리고 기획실에도 그 해에 한 육백만원 정도 한 사업에 줄 수 있는 예산이 있더라구요. 연구과제사업으로. 그러면 저희가 매년 신청을 해 가지고 매년 2가지 3가지 센터별로 정책연구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고, 발표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말씀하셨듯이 상시인원을 저희가 좀 한 명 두 명 정도는 저희가 예산이 최소 7~8천 이렇게 들기 때문에 사실은 매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예산반영이 쉽지않은 상황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매년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남궁영

방법적으로 생각해 보면 굳이 뭐 연구원 해가지고 그 양반은 책상에 앉아가고 맨날 연구만 하는 그런 형태보다도 결국은 일 하면서 아~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생각들이 생기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중장기계획이 만들어져도 만들어질 수 있을 테니까. 아무래도 그 사업을, 눈에 보이는, 그냥 현장의 사업을 중심으로 하다보면 이 주변의 청소년들 중심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이사 장기수

그 기존에는 저희가, 천안시가 예전에는 수련관이라든지 상담복지센터가 안정되지 않았었습니다. 도가 도 일도 하면서 천안시를 일정 정도 감당을 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천안시가 상담복지센터가 한 4년 되나?(직원에게 질문. 직원 7년이라고 대답함. 원장 7년 되나요?) 거기가 생기면서 안정적으로 천안시 이런 차원, 저희는 여기 관련된 직접사업은 현재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5%도 안됩니다. 그래서 다만, 남아있는 직접사업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여가부에서도 기관들은 이러이러한 실적은 기본으로 하라는 것 말고는 지금은 다 이관하고 있고, 한 두 사업 말고는 다 이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습니다.

이사장 남궁영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도 단위의 청소년진흥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찾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책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이사 장기수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 늘었던 게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는 도답게, 충청남도만의 특성화된 사업이 뭐냐라고 할 때 지금은 여가부사업만 95%이상, 여가부 지정사업만 했는데 그럼 충남에 맞는 사업들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군상담복지센터와, 리더십도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기획하고 예산집행을 하고 진행은 시군의 상담복지센터나 시군에 수련관, 수련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일부 하고 있고. 그래야 저희는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천안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 때도 있고, 천안에서 할 때가 있고, 나머지 시군은 시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시군과 협업을 통해서 나눠주지는 않지만 집행은 저희가 하고 일은 시군과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거죠.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연관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남궁영

예. 자, 우리 이사님

이사 손진희

아 예, 아까 박이사님 얘기하신 사실 제가 딱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잘 말씀해주셔서 전적으로 동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충남의 어떤 고유한 사업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고, 직접사업보다는 그 얘기하실 때 아마 국비가 사업비의 50%이상은 오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요청하는 실적보고도 해야되고, 거기서 해야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야되는 그 아마 실적압박에 시달리실 것 같아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처지이고, 플러스 알파 충남의 고유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도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사실은 옛날에 서울, 서울시 청청소년지킴이 옛날에는 종합상담실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센터로 바뀌었는데 초창기 멤버거든요. 초창기때 서울시 청소년과 과장님이 숨어있는 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셔서 시설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주시는 입장에서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져서 전국의 시도상담실이 서울시를 보러 오고, 어떻게 하는지를 자꾸 노하우를 얻어가려고 하는데 지방이 재정이 후해지다

보니까 도비는 여가부에서 50:50 매칭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은 주시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서울시는 우리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거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주겠다 해서 플러스 알파를 굉장히 많이 주고, 또 월급체계도 서울시, 그 저기 옛날에는 우체부였던 것같은데 그 당시 국가기준이 아니라, 봉급기준이 아니라 서울시 기준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충남 청소년정책이라든지, 이 기관 활성화에 대단히 많이 기여가 되고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사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사장 남궁영

예. 아니 그런데 당연한...

우리 저 손진희 이사님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그 선후의 문제는 ‘돈 줄테니까 뭐 해봐라’가 아니고 ‘뭘 하려고 하니까 돈을 주세요’여야돼요. 사업계획이 만들어져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돈을 주세요’지 ‘우선 돈부터 주고’이래라 이걸 아니거든요. 계획을 한 번 많이 세워보세요.

이사 장기수

올해 저희 사업비가, 굉장히 이제 도비사업비가 처음으로 많이 반영된건데, 그 전에는 다 매칭이라 저희가 그냥 의무적으로 받은건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책관님이나 팀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르셨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대부분이 이제 삭감되거나 일부 줄이거나 한 사업을 늘이지 않은 형편인데 저희만 아시겠지만 이 사업들이 하나하나 금액은 적지만 7~8억이 늘어난 거거든요. 비율적으로 전체 예산대비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단계들을 또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조금 사족을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 왔을 때 저희 직원 이직률이 매년 30% 였었습니다. 저희는 사람사업을 하는 기관인데, 그리고 시군은 10년, 20년차인데 다 와 보니까 50%가 1년차, 2년차이더라고요. 매년 30%가 이직했었으니까. 그런데 현재 저희 이직률이 거의 제로입니다. 이제 3년째. 그래서 이제 직원들도 일정정도 안정화되고 숙련도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그 숙련성으로 당분간은 극복을 좀 해보자, 그리고 실제로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왔을 때 저희가 충남에서, 충남이

전국광역단위에서 최하위였습니다. 지표나 이런 게. 예산도. 그런데 지금은 중간정도는 간 것 같아요. 직원처우나 예산 이런 부분들이. 관련해서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정책개발, 비전, 직원들의 처우관련해서 사실은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본청 갈 때 저희 때문에 너무 많이 시달리세요. 여기 정책관님이 주로. 예산때도 저희 때문에 30분, 1시간 지연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 손진희

고유한 아이템 발굴이 정말 원장님 말씀처럼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사 장기수

예

이사 송태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떠한 정책기능을 하게 도비가 여기 최소한도로 매칭비율만 따지면 20 몇 억이 들어갑니다. 이 도비는 이거 외에 자체사업으로 하려면 도도 상당히 부담이되지요. 그러니까 여가부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대로 여가부가 돈을 줘서 5:5, 6:4 매칭펀드로 내려오잖아요. 이거를요 도에서 다 소화를 시키려고 도비가 다 매칭펀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지요. 어떠한, 도비를, 국비사업을 시군으로 이양하면서 시군비를 일부 대게 하면서 여유를, 재원의 여유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안되면 여가부한테 이게 청소년진흥원이 전국에 6~7군데 밖에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그런데 여가부가 계속적으로 밀어붙이지만 재원의 사업비중에서 일부를 시군비를 매칭을 해서 시군비를 가지고 이 재원을 가지고 도가 정책적인 의미로 안 쓰는데가 써야되는데 매칭펀드를 하다보니까 20 몇 억이 전부 다 거기로 들어가고, 자체사업을 하는 데는 몇 억밖에 보고...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정황이 필요하다. 이런 것하고 같이 포함해서...

이사장 남궁영

그, 가만있어봐요. 회의중에 중간에 미안한데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실장 이재기

예,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남궁영

이사회? 녹음을 하고 이사회 회의록을 기록을 하죠?

이사 장기수

예

이사장 남궁영

지금 우리가 우리 박진규 이사님이나 손진희 이사님이 말씀하신게 아마 우리 이사들이 공감하는 내용일테니까 이건 원장님의 대한 지시사항입니다. 그 이사님들의 모아진 의견이기 때문에 예..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거는 이행하셔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 장기수

예

이사장 남궁영

다른 또 계속 뭐 아직 시간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4시반까지 될텐데 말씀을 좀 발전적인 발언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많이 말씀 주시죠.

이사 강인영

폭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계속 유심히 지켜봤는데요 특히 지금 그..사업계획을 보니까 주로 그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주로 이렇게 보면은 위기학생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 지원 이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맞춰져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좀 가해 학생들은 여러 가지 지탄을 받지만 그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학교내..학교밖 말고요 학교내 이런 부분에 관해서 청소년진흥원과 학교 측과 그런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가해 학생에 대해서..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봤는데 결국은 그 학교에서 중3짜리가 학교 폭력에 의해서 바로 전학처분이다 하면은 거의 제일 강한 처분인데 뭐 퇴학..퇴학은 사실상 의무교육 하에서는 안되니까 전학처분을 했는데 과연 학교에서 과연 여러 가지 학부모님의 이런 피해학생 학부모님의 그런 의견에 의해서 결국엔 학교 선생님들이 전학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 학생 처분을 보면 그 가해 학생에 대한 그런 보호도 있는데 심리치료도 있고 그런 조치를 취한 다음에 전학을 하던지 말던지 해야하는데 그런 부분 없이 이루어지는거 같아서 가해학생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좀.

상담복지센터장 이미원

제가 예..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저희 진흥원에서 그 학교의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전학교에 다 들어갈수는 없어서 몇몇학교는 들어가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것처럼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리치료 지원도 하고요 그리고 가해 학생들 집단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원에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시군에 있는 상담복지센터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아이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주나 내지 2주 기간 동안해서.. 그런 부분은 같이 역할을 분담해서 하고 있는데 그..이제..모든 전 학교가 협력이 다 되면 참 좋은데..실질적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하시다보니까 연결이 안되기도 하고요. 그래도 많이는 지금 예전에 비하면 많이 늘어서 같이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

이사 강인영

예 그래서 아까 교육청하고..교육청에서 사업을 조금 뭐 2천만인가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있지만..좀 그 법의 확보에 그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에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사실상 가해학생에 대한 어떤 상당한 교육들이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들에 대한 어떤 뭐 어렸을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선교교육이 이뤄져야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진흥원이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사 장기수

저희가 조금 이런 프로그램 말고도 이제 우리가 학교를 관두기 전에 학업 중단 숙려제라고 그런 예상된 아이들과 저희가 교육청하고 공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고 학교에 가급적이면 잔류해서 다시 학업에 복귀할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우리 일동 이사님 계셔서 하는 말씀드리면은 전국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다른데는 교육청하고 협업이 좀 매끄럽지 않은가보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교육청하고 협업에 가장 우수하다고 해서 사실 배점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지만 교육감님이나 우리 이사님의 이런 분들이 일정정도 학교내의 역할과 학교밖의 역할에서 파트너쉽을 저희 진흥원하고 일정정도 긴밀하게 해주시면서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 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사장 남궁영

예예 말씀하세요.

이사 이상백

그 질의나 그런 부분 보다는 저는 이제 청소년분야가 아니라 다른쪽에 있으면서 이제 봤던 그 청소년 인재 활동 하는 내부 뭐 이런쪽에 3년을 더하면 이제 청소년진흥원에 직원분들이 너무 작은힘으로라도 고생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 복지가 제대로 돼야 실질적으로 그 밖에 나가서 일을 할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원장님께서 우리 직원들 지금 뭐 이직률이나 아니면 기타 복지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우리 직원들 근무를 잘 할수 있도록 하고는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도 관계자분들하고..

시간외 수당이나 여기 뭐 오늘 개정 사항에도 나와 있지만은 토요일근무자 중을 정상적으로 주중에 한다 하면은 토요일근무는 원래 몇 배 해줘야 하는게 맞거든요. 근데 그거를 주중에 그냥 대체만 한다 하는 차원은 이견 문제가 있는거고 그런 휴일근무 수당이나 시간외수당 이런 부분들의 확보 이런 부분들을 신경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사장 남궁영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웃음) 알겠습니다. 다 기록해.(웃음) 자 다른 말씀 또 주시죠. 근데 죄송한데 우리 이상백 이사님이시죠? 근데 우리 이사회 명단에는.

이사 이상백

아 예 제가 위임받아서 왔습니다.

이사장 남궁영

예 그러세요. 인사위원이시면서. 그래서 이상하다 여기엔 없는데 하면서.

이사 강인영

청소년진흥센터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지금 이게 조금 넓은 범위일수 있는데 지금 현재 탈북자 청소년들 얼마나 있습니까? 그 제대로 적응 못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대조될 수 있는데 지금 계속 탈북민들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아마 천안에도 많은 탈북민들 정착해서 살고 있고 가족들이 아이들이 있을걸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청소년진흥차원에서 그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이게 있습니까?

이사 장기수

그니까 아까 우리 일체 소장님 말씀하고 비슷하신데 저희가 이제 청소년들의 어떤 활동과 유형들이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다양해지고 있는거에 대한 서비스의 대상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는 사회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걸 사실 저희 조직이 못따라 가고 있습니다. 그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이 대부분이 이제 오십.. 오십삼명의 직원인데요. 대부분 어떤 정책과 계획에 의해서 아까 우리 박진규 이사님 말씀의 정책과 계획에 의해서 조직이 만들어진게 아니라 사고가 터지면 대체로 직원을 뽑고 예를 들면은 세월호 터지니까 안전요원을 두라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 정원에 들어오지 않고 정원외 직원이에요 그래서 비정규직이거든요. 자격기준은 똑같습니다. 저희는 정규직 비정규직 자격은 똑같은데 저희 진흥원 정원과 그때그때 인건비를 국가에서 기본 인건비를 또 줍니다. 이러이런 사고에..

대부분이 저희가 비효율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가 미디어전담직원이 두명인데 미디어문제가 심각하다 하면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준비하는게 아니라 국가에서 야그럼 거기 직원 구해라 해서 이렇게 보내는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다문화, 다문화 청소년은 청소년이 아닌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위기청소년 중에서도 아예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한 탈북 청소년들 또는 그 가족 아이들, 이런 사업 영역들을 어떻게든 확대해야하는데 현재 조직 체계는 저희 업무에 이렇게 포함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것을 충남에서 어떻게 케어할거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서부터 올해 처음으로 논의를 시작해서 그 네트워크를 구축 중에 있거든요 저희가 현재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대상이 아니지만은 대상의 아이들이 세분화되고 있고 늘어나고 있고 서비스의 요구는 다양화 되고 있는데 예전에 학교밖 아이들은 저희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법률이 생기면 이제 학교밖 아이들도 청소년, 대한민국의 청소년으로서 당연히 여러 가지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진로체험, 건강검진, 수학여행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법률이 생기면은 저희 정원하고 법률하고 안맞으니까 또 비정규직이 되고 이렇게 되는 악순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대상과 영역과 늘어나는 서비스의 수요를 어떻게 충족해야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되고 저희가 안고 있는 과제이자 숙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사장 남궁영

예 그 오십칠명이라고 하셨죠?

이사 장기수

오십삼명

이사장 남궁영

삼명..오십삼명이면 이게 작은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 광역자치단체에 청소년진흥원해서 오십삼명 많은 사실 적은 인원이 아닌데 그 인원을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거예요. 그렇게 직원들이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쪽쪽 늘어나고 또 비정규직으로 있고 하니 아직 틀이 덜 잡힌면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중간 중간 점검을 해서 발전방안하고 연계 시켜가지고 어..조직의 틀도 좀 더 다잡고 그럴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사 장기수

제가 왔을 때는 저희가 팔십 몇명이었는데 그 동반자라고 시군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어서 이사님들도 그러시고 저희가 해서 그 시군을 이관할 해서 동반자 직원들은 시군에서 자체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직접 찾아가서 하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라 해서 그런 부분들 지금 과감하게 시군에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직원이 팔십육명인가 직원이 그랬었습니다.

이사장 남궁영

자 이사님들 말씀 더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송태화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사장 남궁영

아 그러면 지금 아까 그..우리 송 이사님이 수정 의견을 주신게 몇 호였죠? 제 4호 정관 일부 개정안은 수정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제 5호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 개정안에서도 수정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고

이사 송태화

이사장님 이대로 통과시키고 내년에 어차피 전체적으로 손볼 때 다시 보는걸로 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아까 의견을 개진했지만 큰 문제는 없으니까 내년에 전체적으로 손볼 때 같이 볼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장 남궁영

그러시죠. 그럼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 남궁영

그러면 지금 이사님들이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들이 전부 다 우리 원장님의 숙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숙제를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우리 도와고 같이 상의를 하시고, 저도 뭐 같이 힘을 모으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사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심의의결안건으로 제1호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안), 제3호 2017년도 본예산(안), 제4호 정관 일부개정(안), 제5호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개정(안), 제6호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제7호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제8호 예산회계규정 일부개정(안), 제9호 직원근무평정규정 일부개정(안), 제10호 원장 연봉인상 승인 및 소급지급(안), 제11호 기본재산 이자 사용계획(안), 제12호 2017년도 직원 기본연봉 인상지급(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